

문제 1

1. “ 세 제시문은 공통적으로 새로움을 긍정하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는 (가)가 새로움으로 인해 알이 깨져 성숙해진다고 하는 부분과” 오류입니다. 제시문 (가)에선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저급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내용 불일치로 큰 감점입니다.

2. “ 제시문들의 차이점은 세가지 기준에서 드러난다. 다수의 발전방식, 새로움의 발생주체, 다수의 태도가 그것이다. ”

위와 같은 비교기준을 잡아주셨는데 제시문의 주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사소한 기준으로써 비교기준은 항상 제시문의 주제를 관통해야합니다.

3. “전자는 다수가 새로움을 받아들이면서 알을 깨가는 등의 단계적 발전방식을 취하는 반면, 후자는 모방을 통해 발전하는 차이가 있다. 또한 (나)는 모방을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다)는 모방은 연대를 위한 수단이며, 연대로써 새로움을 추구하는 차이가 있다. ”

또 내용 오류입니다. (가)는 새로움 수용을 부정하며, (나)는 모방은 새로움을 추구하지 못하는 매개의 역할입니다. (다)는 맞네요. 하지만 서술의 대부분이 논리적으로 오류입니다.

4. “새로움의 발생주체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와 (가),(나)로 나뉜다. (다)는 다수가 새로움의 주체지만 (나),(가)는 소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가)는 소수의 완전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도 있다. ”

제시문, 발문 불일치입니다. 발문에서 제시문들은 ‘다수’의 역할로써 소수, 다수로 나누는 것은 발문 자체를 무시한 답안 작성입니다.

5. 전체적으로 발문에 대한 이해도, 제시문에 대한 이해, 3자 비교에 대한 이해도가 모두 부족한 답안으로 보여집니다. 논리적 오류 또한 많구요.

문제 2

1. “ (라)의 실험결과는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의향을 참고한 가운데, 스스로 상당히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이유인가요?

2. 표의 해석을 떠나서 (물론 지적할 부분이 많지만) , 이보다 중요한 결론 부분만 볼게요.

“(라)의 관점에서 (가)의 주장은 신뢰도가 떨어져 보인다. 우선 (가)는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일률적인 것을 지양하고, 다양성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라)에 따르면, 개개인은 스스로에 근거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며, 그 결과 일관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가)는 새로운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지. 일률적 지양, 다양성 지향은 이에 대한 근거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주장에 대한 비판이 아니며, (라) 또한 스스로 근거했다기보다 서로 영향을 미치는 조건 하에 새로움을 받아 들이는 판단을 했다고 나와야 합니다.

제대로된 표에 대한 이해와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보입니다.